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 ¹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 ²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어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 ³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 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 ⁵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 ⁶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 ⁷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 ⁸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 ⁹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_시편 8편 1~9절

오늘 본문 시편 8편은 참 아름다운 시입니다. 1절과 9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고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얼핏 보면 참 평안했던 시절을 배경으로 하는 것 같지만, 시편 8편의 배경은 사무엘상 29장에서 31장으로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시간을 배경으로 합니다. 2절을 보면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어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라고 기록하는데,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과하고 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다윗과 같이 우리도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는 찬양의 고백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무엘상 29장~31장을 살펴보면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살피고자 합니다.

1. 블레셋 사람들이 노하였습니다.

- ^{삼상 29:4}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

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사무엘상 29장은 다윗이 사울의 피하여 도망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부하 육백 명을 거느리고 블레셋의 전쟁을 도우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루는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블레셋의 수령들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장수였기에 다윗을 데리고 가지 말자고 합니다. 다윗은 전쟁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간곡하게 간청을 하지만 블레셋의 장수 아기스가 끝내 다윗을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군인에게 수치스러운 일이며, 부하들과 가족들이 먹을 양식을 구할 길이 막혔습니다.

2. 아말렉 사람들이 침노하였습니다.

삼상 30:1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겟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여 양식도 못 구하고 블레셋 아벡에서 사흘 길을 걸어서 부하와 다윗의 가족들이 머무는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니 아말렉이 부하와 다윗의 가족들을 모두 잡아갔습니다. 처소는 불타고, 가족들은 잡혀갔으며, 양식이 없는 앞이 캄캄한 고통이 다윗에게 닥쳤습니다. 이런 상황이 시편 8편의 배경입니다. 다윗은 어려움을 지내왔음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3. 다윗이 울며 금식하였습니다.

삼하 1:12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아말렉을 뒤쫓아 가족을 모두 구출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참여하지 못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사울 왕과 요나단의 전사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일 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왕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무엘상 29장~31장은 큰 어려움이었으며 다윗의 뜻대로 되지 않았으나 뒤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가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가 큰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다윗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라고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복된 날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기도제목 (각자의 자리에서 1시간 이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가도록
- 신천지로부터 교회가 지켜지도록